

“박근혜 처벌” 천주교 광주대교구 촛불행진



7일 오후 광주시 동구 충장로 일대에서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주최한 시국미사 참가자들이 ‘박근혜 처벌, 새누리당 해체’를 요구하며 남동 5·18기념성당까지 촛불 행진을 하고 있다. 이날 정평위는 시국미사와 함께 ‘최순실 국정 농단’을 비판하는 성명서 등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2·3·4·5면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검찰, ‘안중범 다이어리’ 확보 박대통령·재벌 총수 독대 수사

미르·K스포츠 출연 독려 정황

검찰이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 간의 비공개 면담 경위에 관한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면담에서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을 직접 독려했다는 진술이 확보될 경우 박 대통령 쪽을 향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7일 사정당국과 재계에 따르면 현 정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구속)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7일 오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박 모 전무와 이모 상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지난해 7월 24~25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박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 간의 비공개 면담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작년 7월 24일 청와대로 대기업 총수 17명을 불러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 대통령은 공식 행사 때 “한류를 확산하는 취지에서 대기업들이 재단을 만들어 지원했으면 좋

겠다”는 취지의 주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안중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수사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행사 당일과 이튿날 7명의 대기업 총수들을 따로 불러 미르·K스포츠 출연을 주문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7일 안중범 전 수석이 사용하던 작년도 다이어리를 확보해 살펴볼 방침이다. 안 전 수석의 다이어리가 세간의 관심을 끄는 것은 작년 7월 박 대통령과 재벌 총수 간 독대 경위와 내용이 소상히 담겨있을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당시 비공개 면담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 7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미르·K스포츠재단이 기업들의 순수한 참여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편 검찰은 ‘문화계 비선실세’라는 차은택씨는 여전히 중국에서 마무르면서 아직 검찰에 구체적인 출석 날짜를 정해 알려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광주 14개·전남 11개 사업 중 완료 단 한 건도 없고 8개는 시작도 못해

‘지지부진’ 박근혜 대선 공약 최순실 사태로 ‘공수표’ 되나

市·道·정치권 적극 나서야

지지부진을 면치 못했던 박근혜 정부의 광주·전남지역 대선 공약 사업이 ‘최순실 사태’로 ‘올 스톱’ 위기에 놓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1년 3개월의 잔여 임기를 앞둔 상황에서 ‘최순실 사태’로 인한 국정 마비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일부 공약사업은 아예 사업 자체를 시작도 못하고 ‘공수표’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제18대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광주·전남지역 대선 공약 25개(광주 14개·전남 11개) 가운데 완료된 공약사업은 단 한 건도 없고, 8개(32%) 사업은 아예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나머지 17개(68%) 공약사업은 현재 추진중이긴 하지만,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부분 추진되거나 지지부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진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공약 실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정권의 의지 부족 때문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물론 지역 정치권은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공약사업이 조금이라도 진척될 수 있도록 중앙 부처를 설득하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시=7대 14개 세부사업이 대선 공약이었다. 친환경 자동차 기지 조성(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사업과 민주·인권·평화도시 구축사업 지원, 아시아문화수도 육성 등이 꼽힌다.

이 가운데 한국 민주주의의 정당 건립과 민주·인권·평화 캠펙스 조성 등은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건의 국비가 반영되지 않으면서 사업 자체를 시작

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총 3490억원을 투입해 광주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을 하겠다는 공약도 국비 반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물거품 위기다.

이밖에 광주 자원순환종합타운 조성공약과 광주와 순천을 잇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도 단 한건의 국비도 반영되지 않는 등 5개 공약사업은 아직 착수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와 취임 이후에도 수 차례 강조했던 광주 친환경자동차 기지 조성사업도 총 사업비 3030억원 중 지난해 국비 30억원만 반영됐다. 아시아문화수도 육성 사업 또한 총 사업비 5500억원 가운데 24% 정도인 1348억원만 국비로 반영됐을 뿐 나머지 사업들은 대부분 ‘찜질 예산’으로 걸치려만 한 채 진척되지 않고 있다.

>전남도=7대 부문 11개 사업에 필요한 국비는 6조1761억원이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023억원(6.51%)이 투입되는데 그쳤다. 2012년 이전 투자액 761억원을 합쳐도 7.75%에 불과하다. 세부 공약사업별로는 ▲전남~경남 간 ‘한려대교’ 건설(국비 5040억원) ▲우주항공부품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350억원) ▲과학로켓 센터 구축(240억원) 등 3개 공약사업은 삼도 뜨질 못했다.

호남고속철 2단계(광주순정~목포)는 무안공항 경유 문제로 논란을 빚으면서 2조222억원의 국비 중 10%인 2275억원만이 반영됐다. 남해안철도(목포~보성) 고속화는 진척률 9%,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역시 5%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 광양만권 미래형 소재산업 육성 공약 중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602억원)과 동북아 해양관광특구 조성 등 공약 중 여수세계박람회 효율적 사후 활용(580억원) 등 2개 사업은 진척률이 30%, 영암·해남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24%로 그나마 체면치레를 하고 있다.

순천만정원박람회 후방산업 육성(70억원), 항공기 비행종합시험장 구축(413억원) 등은 15%의 진척률을 보였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힐러리나 트럼프냐’ 숨죽인 지구촌

오늘 미국 대선...내일 오전 윤곽

미국 대선 597일간의 열전이 8일(현지시간) 오전 0시를 기해 뉴햄프셔 주의 작은 마을 디스빌노치에서의 첫 투표를 시작으로 대단원에 이른다.

알래스카에 이르기까지 미 전역에서 24시간의 순차 투표를 거쳐 선거 결과는 당일 밤(한국시간 9일 오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선거를 이틀 앞둔 6일(현지시간)까지도 판세가 시시각각 달라졌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날 발표된 몇몇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를 3~4%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오차범위 안밖의 ‘살얼음판’ 리드다. 이번 가운데 최근 클린턴 ‘이메일 스캔들’을 재수사한 미 연방수사국(FBI)이 이날 사실상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면서 막판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클린턴이 악몽에서 완전히 탈출했다는 점에서 일단 호재로 보이지만, 트럼프의 지지층을 뭉치게 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양당의 우열을 가늠하기 힘든 경합 주(州)의 판세, 클린턴을 지지하는 흑인과 히스패닉의 막판 결집도, 트럼프 지지층의 ‘뒷심’, 부동층의 향배도 끝까지 지켜봐야 할 변수들이다. /연합뉴스

한전아파트 기부채납 대폭 축소 ▶6만

자동차밸리 독일 슈투트가르트 ▶18만

프로야구 FA ‘100억 전쟁’ ▶20만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생각한다. 반응한다.
지능적으로

The New E-Class. Masterpiece of Intelligence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신성자동차(주) 광주 점사장
광주광역시 서구 삼부대로 1041 (화정동) /Tel. 062)226-0001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 300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40kg, 자동9단) 복합연비: 10.8km/ℓ (도심연비: 9.6km/ℓ 고속도로연비: 12.6km/ℓ), 등급: 4등급, 복합CO2 배출량: 161g/km E 300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90kg, 자동9단), 복합연비: 10.3km/ℓ (도심연비: 9.3km/ℓ, 고속도로연비: 12km/ℓ), 등급: 4등급, 복합CO2 배출량: 169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